

정부 입장 확인만... 환경보전금 '유야무야'

의원들, 수년째 지지부진 환경보전기여금 추진 질타도 "추경에 반영... 논리방패 상응하는 창 들고 갈 것"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년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최근까지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만 확인하는데 그치면서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정부의 설득 논리를 조속히 마련해 적극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4일 제407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수년째 지지부진한 제주도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관광 이용

객수는 2600만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고 있다"면서 "관광객이 늘면서 생활 쓰레기 문제, 하수처리 문제, 생활SOC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쓰레기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제주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558억원이 든다"면서 "10년전부터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2년 전에는 도청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2억원을 들여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역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냐"고 물었다.

이에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최근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환경부나 기재부 등 중앙부처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국회 행안위에서 의견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이 14일 제40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제시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논리를 내세워 반드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예래동)도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냐"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임 의원은 "도에서 2020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표명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지난 대선에서도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나왔고, 또 도민여론도 찬성 쪽으로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이에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하루라도 빨리 구상해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늦어지고 유야무야 몇년이 지나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 국장은 "최근 각 부처에서 분명한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그 방패에 상응하는 창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안전지수 개선 노력보다 지표 개발 치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 전국 최하위 성적표도 "안전도 관리계획안 마련"

제주지역 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제주도 당국이 "지역안전지수 지표가 불합리하다"는 이유 아래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보다는 새 지표를 개발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4일 제40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민안전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선 매해 전국 최하위권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안전지수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가 매해 안전도 향상을 위한 노력보다 새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도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2015년부터 행안부에서 시행한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매해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도민안전실 대응 방안이 있는냐"고 질의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지금 행안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안전도라는 것이 정부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제주에 맞는 정확한 안전도 평가가 되기 어렵다"며 "우리가 자체적인 용역을 수립해서 올해 9월쯤 되면 초안 정도는 마련된다. 이후 제주형 안전도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체 안전도를 측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현재 지역안전지수가 제주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나 지표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셀프 지표를 개발하겠다는 답변은 도민안전실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고령해녀 은퇴수당 돌아가실 때까지 드려야"

농수축경제위원회

80세에서 75세로 조정 추진 김승준 의원 "해녀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가 연내 고령해녀 은퇴수당 연령을 현행 만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일부조례개정을 통해 대상 연령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차원에서 기존 은퇴 후 3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돌아가실 때까지 은퇴수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1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열린 제40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3차 회의에서 고령해녀 은퇴수당 연령 조정과 관련, 행정차원에서의 조례

개정 이전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한 소득 문제 등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상자인 해녀와 소통도 안하고 조례를 개정하면 실제 소득과 연관되기 때문에 해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어촌계 자동 탈퇴나 공공근로사업 참여 배제 문제 등에 대한 해녀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촌계 탈퇴로 인한 어업인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월 30만원 수당을 받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임광철 서귀포시 농수축경제국장은 "제주해녀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지역에 기여한 부분이 많고 최근 복지 개념 확대에도 재정 여건도 가능해 은퇴수당을 돌아가실 때까지 드리는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백근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과제 산적... 신중히 판단해야"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 오 도청 도입 추진에 중앙 설득 논리 부족 등 지적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추진 과정에서 산적한 과제 등이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제2차 회의를 열고 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설득

논리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론을 당부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지사가 바뀔 때마다 자치체 부활, 시군 부활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았다"면서 "지금 도민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도 "2006년부터 16년간 특별자치도가 나아진 게 무엇이 있는냐. 도민 대상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면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주민참여단의 목적이 무엇



양용만 의원, 이정엽 의원, 하성용 의원, 한권 의원, 현길호 의원

인지 의문"이라며 "지역구 조정과, 5-6개 시로 분리하는 방안들은 누가 결정하는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지 말지 투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와 방향에 대해 의원들도 고민이 많다"면서 "기관

구성, 과정에서 도민사회의 의견 수렴 등 산 넘어 산"이라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답을 미리 갖고 가는 것 같다"며 "제주형이라는 말에 기관통합형이 들어있는데, 기관통합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태윤기자

이름다운 노후! 알하는 노후! 행복한 노후!

탐나는 5060 신중년 취업양성프로그램 '건강플래너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정해진 공간, 정해진 시간 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 내 공원을 활용한 여가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건강체조, 뇌인지 및 두뇌활동을 활용한 취업양성프로그램입니다.

교육명	교육시간	모집인원
건강플래너 양성과정	주2회 3시간 (화,목) 14:00-17:00	20명

■ 모집구분

■ 신청대상

- 만60세~67세 · 제주시 실거주자에 한함 (우대사항)
- 교육자격을,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치매관련 인지학습교육 수료자 우대
- 프로그램 관련 경력자 우대

■ 신청기간

2022. 07. 11(월) ~ 07. 20(수) 09:00~18:00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 신청불가)

■ 신청방법

제주시니어클럽 (방문접수)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구, 상록회관)

■ 문의전화: 064-745-3999

■ 지원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기타: 해당과정 수료 후 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참여기회

사회복지법인 섬나기
제주시니어클럽

토 지 구합니다

· 제 주 시 ·

구좌읍 조천읍

조 건

- ① 전원주택용 부지
-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 ③ 계획관리지역

베 네 건축 베 네 하우스

문의: ☎ 064-723-1105

제주누리 미등기토지연구소 포지전문

토지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귀하가 소유하신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 드립니다.

업무안내

- 01 자택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 드립니다.
- 02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 03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 드립니다.

[시행 2020. 8.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격시행
2022년 1월 4일부터 기존동지역 묘지도 포함시행!
미등기부동산 자금이 기회입니다!

올해 8월4일까지가 조치법 기한

☎ 제주토박이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1길 14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